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내달 첫 가동

의료진 구성 완료... 제주시 한라체육관에 설치 도 “질병관리청이 백신 우선 접종할 집단 결정” 조만간 2분기 접종대상자 대상 사전예약 안내

제주지역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가 다음달 문을 연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11일 “제주시 한라체육관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를 오는 4월 1일부터 가동할 계획”이라며 “접종센터 가동 전 실제 접종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오는 22일 군부대와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접종센터 가동일은 백신 수급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접종센터에서는 보관 조건이 까다로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난달 22일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보관할 초저온 냉동고를 제주시 한라체육관 접종센터에 설치했다. 초저온 냉동고는 영하 75~80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접종센터에 배치될 의료진 구성을 마무리했다. 의료진은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요원 2명 등 총 10명이다. 접종센터는 원칙적으로 예약제로

운영된다. 접종센터에서는 코로나19 취약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등 2분기 접종 대상자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는데 이중 어느 집단이 우선 접종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어느 집단이 센터에서 우선 접종할지는 질병관리청이 결정한다”며 “조만간 질병청 지침이 나오면 해당 대상자들을 상대로 접종 안내 문자를 보내 예약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접종센터 가동을 2주일 앞둔 오는 15일에는 화이자 백신이 제주에 도착한다. 화이자 백신 접종은 도내에 선 이날이 처음으로 배정 물량은 2100도스로 추정되고 있다. 첫 화이자 백신은 접종센터가 아

닌 코로나19 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3곳으로 보내져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체 접종한다. 따라서 15일 이후 제주에 도착하는 추가 화이자 백신에 접종센터에 배정된다. 한편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 65세 이상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 등에 대해서 이달 안에 AZ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9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60곳에 공문을 보내 65세 이상 접종 대상자를 추려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 코로나 19 확진자 2명 추가 학교·체육시설 1200여명 진단검사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코로나19 확진자 2명(제주603·604번)이 추가 발생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604명으로 늘었다. 이날 들어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총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2명의 확진자는 지난달 28일 제주지역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 1곳을 동시공간대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돼 검사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검사 결과 11일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모두 확진자와 같은 장소를 방문했지만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감염원 등 추

가 역학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603번 확진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604번은 지난 9일부터 목감기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파악,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확인, 현장 CCTV 분석 등을 진행 중이다. 한편 오현고등학교,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탐라중학교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총 83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확진자가 방문했던 제주 시내 불령장에 대해 제주도가 지난 8일부터 일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총 405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강다혜기자

60대 보행자 차에 치여 숨져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보행자가 무면허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11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8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마을 주민 A(64)씨가 B(43)씨가 몰던 차에 치였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수술도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결과 운전자 B씨는 수년 전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고구마 파종하는 농촌 11일 제주시 한경면 한 밭에서 농민들이 고구마 파종작업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코로나 여파 원격수업 학교 속속 등교 재개

11일 기준 3개교만 차질

11일 도내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자 발생으로 원격수업으로 추가 전환된 학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탐라중(전체 학년), 오현고(3학년), 제주여상(1·2학년) 등 3곳만 원격수업으로 전환 운영되고 있다. 세 학교는 오는 19일까지 원격수업이 진행된다. 오은지기자

지난 10일 기준 원격수업으로 전환 운영했던 5개교(대기고, 제주중앙고, 제주고, 제주사대부고, 오현중)는 자가격리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등교수업을 재개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6일 탐라중 교사와 오현고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8일부터 자가격리자 등의 발생으로 총 18개 유·초·중·고등학교가 하루 이상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 운영됐다. 오은지기자

“주1회 완전 채식급식”

제주지역 12개 시민단체 및 정당로 이뤄진 (가정)기후위기 대응 채식급식 지원 조례 제·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11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1회 완전 채식급식과 채식선택권 보장 및 학교 교육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지금 같은 식생활을 유지한다면 화석연료를 다 끊어도 파리기후협약 목표인 1.5도 달성이 어렵다”며 “먹거리와 생산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오는 2050년 야생동물의 90%가 서식지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제주항공-에어서울 접촉사고 ‘아찔’

지난 8일 제주공항서... 국토부 사고 경위 조사

제주국제공항에서 여객기 두대가 스치며 충돌했으나 두 여객기는 이를 모르고 정상 운항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50분쯤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계류장에서 제주항공 7C606편과 에어서울 RS906편 항공기가 스치며 충돌했다. 이 충돌로 제주항공 항공기 왼쪽 날개 끝 부분과 에어서울 항공기 꼬리날개 부분이 경미하게 손상됐으

나, 두 비행기 모두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비행을 시작했다. 당시 에어서울 항공기는 승객 171명을 태운 채 운항하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충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항공 항공기는 승객 151명을 태우고 광주공항을 갔다가 제주공항으로 돌아온 뒤에야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국토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태훈기자

“학생대상 약물 예방교육”

음주, 흡연 및 유해약물로부터 도내 학생들을 보호하는 예방교육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영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행계획에는 유해약물에 대한 학생·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를 실시토록 했다. 오은지기자

전 여친 감금·몹쓸짓 30대 교도소에서 숨져

감금과 몹쓸짓, 무차별 폭행으로 전 여자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30대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1일 제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30분쯤 교도소에 복역 중인 강모(38)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3일 전 여자친구 A씨를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로 끌고 가 사흘간 감금해 몹쓸짓을 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송은범기자

“영등기간 해양사고 대비” 제주해경 특공대 전진배치

해양사고가 잦은 ‘영등기간’을 맞아 해경이 특공대를 전진배치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기상악화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특공대를 서귀포시 화순항에 전진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12일부터 2주간 이어지는 영등기간에는 해상기상이 악화, 선박사고가 잇따르는 시기다. 실제 2018년 15척, 2019년 17척, 2020년 14척 등 총 46척이 영등기간에 화재·충돌·침수·전복 등의 사고를 당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구조세력 분산을 통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하하농법 3월의 농사메모

키 위

만감류

양파

마늘

※ 해피한그린 1ℓ 25말 + 글로칼 1봉 25말 = 7일 간격 2회살포 → 형태적 화아 분화

레드향 · 천혜향 · 한라봉

- 보조 가온전 3일 동안 물을 충분히 준다
- 꽃눈이 보이면 해피한그린 + 글로칼을 7일 간격 2회 살포 해준다
- 레드향은 분소 관주 및 엽면시비를 꼭 할 것 (7월말경 낙과 및 낙엽 배급주위 응고현상 방지효과)

양파

- 비대와 병해방지를 위해 썰파고 + V패스 + 히토락 + 천연가리를 15일 간격 2회 살포한다 (살균제는 따로 쓸 필요가 없다)

마늘

- 해빙기에 잎지썩음병 방지를 위해 썰파고 + V패스 + 히토락 살포

“하하농법으로 농민들이 하하웃는 그날까지”

(주)포트라 제주지사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 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